

### 돌아온 '1박2일'



〈시즌 4〉



위 왼쪽부터 김중민·연정훈·문세윤

아래 왼쪽부터 김선호·딘딘·라비

### 김태호 '같이 편딩' 25억 모으며 시즌 종영

#### 시즌2 내년 상반기 방송

'무한도전' 시즌 종영 후 오랜만에 돌아온 스타 PD 김태호의 실험작 '같이 편딩'이 시청률은 부진했지만 '의미'에 방점을 찍으며 잠시 안녕을 고했다.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 방송한 MBC TV 예능 '같이 편딩' 시즌1 마지막 회 시청률은 3.8%-3.1%를 기록했다.

최종회에서는 첫 프로젝트였던 배우 유준상의 태극기합부터 마지막을 장식한 바다 같이까지 총 다섯 개 프로젝트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편딩 결과 유준상의 태극기합은 21억 3000만원을 달성, 독립 유공자 후손을 돕는 데 쓰이게 됐다. 청각장애 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원을 위한 유인나, 강하늘의 오디오북 프로젝트는 2억 3400만원, 태풍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한 사과 편딩은 9983만원, 환경 단체에 기부될 바다 같이 프로젝트는 1억 640만원, 노후철소 모임 편딩은 62만 원을 모았다. 총 25억 7085만원이다.



김태호 PD

혼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시청자들과 '같이' 실현해보는 콘셉트의 이 예능은 특히 유준상의 태극기합 프로젝트로 큰 화제성을 얻었다. 시즌2는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이다. /연합뉴스

##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원형으로 간다”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 기준 포맷은 그대로 유지 연출 방글이 PD 출연진은 연정훈·김중민 문세윤·김선호·딘딘·라비



#### KBS 예능 대대적 변화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씨름의 희열'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신규 프로그램 방송

KBS 2TV 간판 예능 '1박2일' 시즌4부터 신규 예능 '씨름의 희열'까지 KBS 예능 프로그램들이 대대적 변화를 선언했다.

KBS는 18일 여의도 사옥에서 신규 프로그램 설명회를 열고 돌아온 '1박2일' 시즌4와 '정해인의 걸어보고서', '씨름의 희열',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등 신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1박2일' 시즌4는 다음 달 8일부터 익숙한 시간대인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30분에 시청자들과 다시 만난다. 기존 포맷은 그대로 유지하되 메인 연출은 방글이 PD가, 출연진으로는 연정훈, 김중민, 문세윤, 김선호, 딘딘, 라비가 결정됐다.

'1박2일' 재개는 멤버 정준영이 집단성폭행 등 혐의에 휘말리며 무기한 결방을 선언한 지 9개월 만이다.

이재우 예능센터장은 '1박2일' 재개와 관련해 “느리나 빠르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시즌3를 갑작스럽게 종료했을 때 재개해달라는 민원이 중지해달라는 민원의

2배 이상 상회했다”라고 재계 계기를 밝혔다.

정준영이 촉발한 이른바 '출연자 자질' 문제와 관련해 KBS는 시청자위원회와 조율을 거듭하며 사내 검증 기구인 '출연자 자문회의'를 곧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후히 제작2본부장은 “검증이라는 단어도 좀 조심스럽다. 자칫 신상털기 내지 뒷조사라 될 수도 있고 사법권이 있는 것도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상식과 합법적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 끝까지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박2일' 시즌4는 김중민을 제외하고 멤버가 모두 교체됐다. 이황선 '1박2일' CP(책임 프로듀서)는 “섭외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어느 예능에도 출연하지 않고 '1박2일'에만 독점 출연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면서 “출연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장시간 인터뷰하며 모셨다”고 밝혔다.

메인 연출을 맡은 방글이 PD에 대해 이

센터장은 “방 PD를 메인PD로 세웠을 때 과연 큰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약간의 우려가 있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 조연출 시절 감각이 뛰어나다는 건 후배들이 다 인정했다”라고 치켜세웠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방 PD는 '1박2일' 경험이 없어서 시즌4가 출범할 때 기존과 다른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다”며 “또 리얼 야생 버라이어티 원형이 가진 미덕이 있는데, (이번엔) 시즌1으로 돌아가서 어떤 점이 지금의 '1박2일'을 만들었는지 연구하고 또 그걸 '1박2일' 경험 없는 방 PD가만 쳐보면 '세련된 촌스러움'이 생기기 어렵지 않냐”라고 말했다.

'씨름의 희열'은 지난 추석 유튜브에서 씨름이 화제가 되기 전부터 기획·개발 단계에 있던 프로그램이다. 현역 씨름 선수 16명이 출연해 경량급 천하장사를 겨루는 이 프로그램은 총 12회로 기획됐고 마지막회는 생방송으로 8강 토너먼트를 중계할 예정이다. 오는 30일 밤 10시 45분

방송을 시작한다. 최재영 CP는 “지난 7월부터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씨름 선수들에게 사람을 팔아들이는 매력 있다”며 “그 매력을 잘 전달하면 파괴력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량급 선수들로 출연자를 한정시킨 데 대해선 “태백급(80kg 이하)과 금강급(90kg 이하)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방송이나 언론 노출에서 소외된 선수들”이라며 “이들을 전면에 부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선수들로 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 밖에도 장성규가 출연하는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19일 밤 11시 10분), '정해인의 걸어보고서'(26일 밤 10시)를 방송한다.

이후히 제작2본부장은 “시청률 수익 이전에 KBS 구성원들의 자신감 회복이 목표다.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걸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N 다큐 '시프트' 컴백...김영하·김정운 등 출연

#### 다음 달 13일 첫 방송

tvN은 지난해 사회의 다양한 화두를 짚었던 다큐멘터리 'tvN 시프트(Shift)'를 다음 달 13일 다시 선보인다고 예고했다.

첫 방송에는 소설가 김영하, 문화 심리학자 김정운 박사, 트랜드 전문가 김난도, 교육공학자 폴 김이 참여해 각자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김영하는 '북(Book)'을 주제로 '책의 운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변화하는 독서 플랫폼과 문화를 분석하고, 21세기 독자들에게 선택받는 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연합뉴스



김영하 소설가

김정운 박사

김정운 박사는 '공간'을 주제로 학교와 일터, 주거지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과 의식을 보이는지 짚어본다. 다음 달 13일 밤 11시 첫 방송.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맞 좀 보실래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조선로코-녹두전(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다크 나쁜 신다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특목 보습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닉우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다크 인사이드(재)	2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팔도방송 스페셜 30 전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배구 여고부>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재)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다크 공감(재)	00 5 MBC 뉴스 2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55 오매! 전라도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VIP(재)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55 MBC 뉴스데스크	
7	00 KBS 뉴스 7 10 전라도 매력청	50 유아한 모녀	55 MBC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00 닥터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쏘자
8	00 특집 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30 글로벌24 55 거리의 만찬(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VIP
9	40 KBS 뉴스 9		50 편애중계	
10	40 역사저널 그날	00 조선로코-녹두전		05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대한민국·브라질)
11	35 더 라이브	10 슬기로운 어른이 생활	10 PD수첩	
12	15 UHD 하룻밤 여행 소리랑 20 KBS 뉴스 30 KBS 결집 다크멘터리(재)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KBS 드라마 스페셜 2019(재)	05 양로코 특집 다크멘터리 헬로 그리팅엔 DMZ의 꿈	30 나이트 라인

###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건축탐구 - 집	17:45 띠띠뽀 띠띠뽀(재)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니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미래교육 플러스	19:00 스파이더맨
07:45 페파 피그	14:45 몰랑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똥똥똥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00 머털도사
08:30 띠띠뽀 띠띠뽀	15:10 로보카 폴리(재)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중국한시기행10 황하3 - 성인의 트랙>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30 한국기행 <도사락 기행 2부 그렇게 농부가 된다>
09:00 출동! 슈퍼왕스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1:50 EBS 다크프라임 <아시아의 열대 5부 정글의 카누전사 시카리족>
09:30 원더볼즈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22:45 건축탐구 - 집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곰(재)	23:35 미래교육 플러스
10:30 한국기행	16:40 똥똥똥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페파 피그(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9일(음 10월 23일 庚申) ☎ 010-9790-8237

<p>36년생 객관적인 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48년생 생활에 보탬이 될 만한 유익함이 보인다. 60년생 요령을 찾고 보면 매우 쉬워질 것이다. 72년생 전례에 비추어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 84년생 성패를 의식하지 말고 묵묵히 실행함이 더 낫다. 96년생 기왕이면 리듬을 살려서 했을 때 더욱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2, 66</p>	<p>30년생 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판세이니라. 42년생 일일이 확인하라. 54년생 자연히 따라 올 것이니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 66년생 어떻게 처세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된다. 78년생 현재의 기본적 양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 한다면 버려라. 90년생 난제에 봉착하여 불편하겠다. 행운의 숫자 : 55, 09</p>
<p>37년생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49년생 밤심하다 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니라. 61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라. 73년생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85년생 바라만 보아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니 차분하게 대응하라. 97년생 소중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31</p>	<p>31년생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욕심내어서는 아니 된다. 43년생 위험 요소를 무시하면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55년생 일단 마무리 짓는 것이 나을 것이다. 67년생 혼잡한 상태에서 바쁘게 진행 될 것이니 집중하라. 79년생 의미를 부여한다면 새롭게 빛나리라. 91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백 번 못하다. 행운의 숫자 : 28, 20</p>
<p>38년생 명확해야만 뒤따를 없앨 수 있다. 50년생 처지와 정황을 감안하여 처신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62년생 기회가 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74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만 행한다면 손쉽게 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86년생 간접 경험의 효과가 매우 크겠다. 98년생 한걸음 가까이 인정받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2, 14</p>	<p>32년생 북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열고 기쁘게 맞이하라. 44년생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건이 보인다. 56년생 과도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68년생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다. 80년생 탄력적이라면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92년생 과신은 손해를 부르니 둘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행운의 숫자 : 91, 47</p>
<p>39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이다. 51년생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63년생 일관되게 지속되어야 능률이 오른다. 75년생 유용한 미래를 여는 단초를 마련한다. 87년생 오늘의 선택을 잘 한다면 뒷일이 수월 해지리라. 99년생 맹목적인 판단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속출할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48, 86</p>	<p>33년생 비로소 뜻을 펼칠 때가 되었다. 45년생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가 보인다. 57년생 조건 없이 조력하는 이의 성의가 기특할 뿐이다. 69년생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81년생 현재의 형세에 얽매지 말고 대국을 살필 수 없으니라. 93년생 강력한 장해 요인 앞에서 관측스러워 하는 위상이다. 행운의 숫자 : 79, 02</p>
<p>40년생 점점 세분화 되겠다. 52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64년생 처음부터 뚜렷이 구분 될 것이다. 76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에 충실해야만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88년생 과잉 신뢰는 진로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00년생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리라. 행운의 숫자 : 98, 30</p>	<p>34년생 금권에 휘둘러지면서 번번이 험싸일 수도 있다. 46년생 현재에 대한 실적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 가치에 의미를 두라. 58년생 실행하기 힘든 판세이니 참모로 애석하기 그 지않겠다. 70년생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 질 수도 있는 길한 시기이다. 82년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어야한다. 94년생 상황에 맞게 속히 조치하라. 행운의 숫자 : 63, 65</p>
<p>41년생 본연적 가치를 염두에 두라. 53년생 잘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겠다. 65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떠밀려날 것임에 틀림없다. 77년생 자연스러움이 제일 무난하다. 89년생 고행의 길이긴 하지만 장래를 위한 보람은 있겠다. 01년생 가장 용이한 일부터 처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94, 58</p>	<p>35년생 행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47년생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59년생 자신의 판단을 중시하라. 71년생 알뜰해야 실속이 있는 법이다. 83년생 마음을 비우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95년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으면 뜻이 수고다. 행운의 숫자 : 82, 06</p>